

Gallery



‘무위(無爲)’는 ‘아무 것도 하지 않으면서 모든 일을 이룬다’라는 역설적 의미로, 나에게 있어 궁극적 가치를 자연과의 조화속에서 이루고자 하는 삶과 예술의 실천적 존재방식이며 윤리적 태도이다. -작가노트-

USunok

무위예찬

Editor 정달운 Cooperation 국제갤러리


한국의 대표적인 증견작가 우순옥의 개인전 《무위예찬》이 6월 12일까 국제갤러리에서 전시된다.

우순옥은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예술적 사유에 있어 가장 핵심적이며 철학적인 개념들을 다양한 형식적, 방법론적 실현과 시적 변주를 통해 가시화 해왔다.

이번 전시에서는 그의 작업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주제인 ‘무위’의 개념을 바탕으로 사라진 장소와 부재하는 대상에 대한 기억들을 소환함으로써 관객들에게 우리 자신을 포함하여 우리를 둘러싼 대상들의 존재 이유와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묻는다.

노자의 ‘무위(無爲)’사상을 다시 읽고 해석하는 작가의 시도로부터 출발한 《무위예찬》전은 과도한 경쟁과 결과 중심주의가 일상을 압도하는 이 시대의 개인들에게 한걸음 뒤로 물러서서 삶을 바라보고 관찰하는 예술가의 시선을 공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이 전시는 작가가 과거에 제작한 작품들을 20여 년 만에 다시 꺼내보는 것에서 시작한다. 1985년 대학시절 제작한 유화작품 〈침묵의 바다〉(1983)는 존재의 의미에 대한 근원적 질문을 다룬 작품으로, 캔버스의 프레임에서 해체되어 돌돌 말려진 채로 서울과 독일을 오가던 중 작가가 1995년 독일을 떠나면서 그곳의 작업실에 남겨졌다. 그리고 2016년 어느 날, 마치 서랍 속의 오랜 귀중품처럼 잘 보관되어 있던 옛 작품들을 다시 꺼내보다가 그곳에서 시간의 굴곡이 새겨진 그림들을 마주하게 된다.

작가는 이 작품에 〈시간의 그림〉(1983/2016)이라는 새로운 제목을 붙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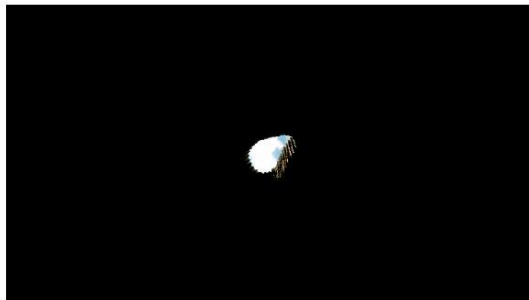
엠티스페이스-우리는 모두 여행자이다, 2007, 비디오 설치, 45분 14초



시간의 그림, 1983/2016, 캔버스 위에 유화, 실,
주름진 시간의 흔적, 142x121cm



파라드로잉, 2014/2016, 영상, 5분 5초



사일런스, 플리즈, 2014, 영상, 4분 34초



우순옥 작가는 1958년 인천 출생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미술대학 및 대학원 회화과 졸업 후, 1985년 독일로 유학하여 뒤셀도르프 콘스트아카데미(Düsseldorf Kunstakademie)에서 쾨터 위커(Cather Uecker) 교수의 지도 하에 수학했다. 7여년간 독일에 머물면서 작가의 철학적이고 개념적인 예술관을 구축하였고, 이 시기는 작가만의 창작적 사유의 바탕이 되었다. 1995년 한국에 돌아와 이화여자대학교 조형예술대학 교수로 있다.